

4차 산업혁명시대 '첨단의료기기산업' 투자 확대해야



국회 스마트메디 연구모임 정책간담회

첨단의료기기산업의 성장을 위해 전폭적인 R&D 투자와 정부의 적극적인 실행이 뒷받침돼야 하며, 역량을 한 데 모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국회 스마트메디 연구모임(대표의원 윤종필)은 한국의료기기 산업협회(회장 이경국)와 공동으로 'AI(인공지능)·로봇이 결합된 첨단의료기기산업의 현 주소는?' 주제 정책간담회를 3월 2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부각되고 있는 로봇기기, 인공지능, 빅데이터가 결합된 첨단의료기기산업의 현황을 살펴보고, 향후 입법과제 및 정책 방향을 비롯한 헐反正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윤종필 국회의원은 "첨단의료기기산업은 미래 먹거리 산업이며 국가 경쟁력 향상에 크게 기

여할 것으로 전망되는 산업으로 써 정부·의료계·학계·ICT 전문가 등이 협업해 앞으로 계속 육성해나가야 한다"면서 "첨단의료기기산업 육성을 위한 좋은 정책들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입법적·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양성일 보건산업정책국장 대독)은

"지난해 12월 4차산업혁명위원회에 '헬스케어특별위원회'를 설치하며 세계 시장을 선도하는 우리 기술로 누구나 건강한 사회를 구현시키겠다는 비전을 밝힌 바 있다"면서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하는 기술의 힘을 바탕으로 새로운 변화들이 촉발될 수 있으며, 우리나라에는 충분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우리나라 의료기술은 이미 선진국 대열에 올라섰지만 ICT(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첨단의료

기술은 선도국인 미국의 70~80% 수준으로 약 4년 정도의 기술 격차가 벌어져 있는 상황이다.

'의료 인공지능 적용 현황과 문제점' 주제로 발표한 이상은 연세의료원 Health-IT 산업화 지원센터 책임교수는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첨단의료기술의 융합으로 개인 맞춤치료 등 정밀의료를 실현하고, 건강보험 재정 절감 및 의료복지 향상 등의 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인공지능 헬스케어의 시장 규모도 비약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발표에 따르면 국내의 경우 2020년 2조2000억 원에서 2030년 27조5000억 규모로 커질 것으로 예측되며, 세계 시장은 2016년 6671억달러에서 2022년 7조9888억달러 규모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어 토론에서는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련 부처가 각 기관의 역할 및 향후 과제에 대해 발표했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4차산업혁명 의료기기 특별위원회의 로봇·빅데이터·3D프린팅·스마트헬스 등 각 분야별 분과장이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며 제언하는 시간을 가졌다.

주혜진 기자 hijoo@koreanurse.or.kr

스나 제품의 상용화 전략 등 조언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신의료기술평가, 건강보험 등재 등 의료기기 인허가 절차 상담을 통해 신속한 제품 출시가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국내 제약기업을 대상으로 해외시장 진입에 필요한 인허가 등 규제와 마케팅에 대한 해외제약 전문가 컨설팅을 제공한다.

복지부는 센터가 서울역 인근에 위치해 전국에서 접근성이 우수하고, 연구소·대형병원 등이 인근에 자리 잡고 있어 소통과 협업의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양성일 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은 "보건산업혁신창업센터가 연구개발 결과물이 혁신적 기업의 창업과 성장,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선순환적 보건산업 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혜진 기자 hijoo@koreanurse.or.kr

내 말과 행동 성희롱에 해당될까?

직장 내 성희롱 '자기진단 앱' 개발

사업주와 노동자가 직장 내 성희롱 위험정도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돋는 '직장 내 성희롱 자가진단 앱'이 개발 보급됐다.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성희롱 근절 대책의 후속조치로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국민 인지도 향상을 위한 '직장 내 성희롱 자가진단 앱'을 만들었다.

자신의 발언 및 행동에 대해 상대방의 체감정도를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직장 내 성희롱이 주로 발생한다는 점에 확인했다. 개인인이 자신의 행동이 성희롱에 해당하는지를 스스로 진단해볼 수 있도록 개발했다.

자기진단 앱은 누구든지 스마트폰에 설치해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체크리스트는 총 40문항이다.

'성희롱 판단력' 20문항과 '성인지 감수성' 20문항으로 구성됐다.

성희롱 판단력 문항을 통해 본인의 어떤 말과 행동이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되는지 알 수 있다. 성인지 감수성

문항을 통해 본인과 소속 조직의 성희롱 관대화 정도, 성역할 고정 관념 수준, 성희롱 규율의 제도화 정도 등을 판단할 수 있다.

자기진단 앱은 일반 스마트폰의 경우 플레이스토어, 아이폰의 경우 앱스토어에서 '성희롱 자가진단'을 검색해 다운로드하면 된다.

고용노동부는 10인 이상 근로자 사업장을 반드시 연 1회 실시해야 하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시 자기진단 앱을 활용토록 권장할 계획이다.

또한 다국적 기업의 CEO, 관리자, 외국인 노동자 등도 활용할 수 있도록 영문판 앱도 함께 보급할 예정이다.

김덕호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CEO, 관리자, 노동자가 스스로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지식과 감수성을 체크해보는 기회를 가짐으로써 최근 미투(Me too) 운동이 미페스트(Me first) 운동으로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우정 기자 sjchoi@

한국간호교육평가원장 초빙 공고

재단법인 한국간호교육평가원은 「고등교육법」 제11조의2에 의한 프로그램평가인증 전부 인증기관으로서, 정부 위탁사업인 '간호교육인증평가'와 '전문간호사 자격시험' 등을 주관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한국간호교육평가원에서는 다음과 같은 전문성과 지도력을 갖춘 분을 한국간호교육평가원장으로 모시고자 합니다.

▣ 모집 직위 및 일정

- 한국간호교육평가원장 1명
- 임 기 : 2년
- 근무조건 : 비상근으로 주 3일 이상 근무

▣ 자격요건 및 심사기준

- 간호학 전임교원 경력 20년 이상인 자
- 평가 관련된 경력을 가진 자
 - * 간호교육인증평가 관련 활동 경력, 대학자체평가, 대학기관인증평가, 대학구조 개혁평가, 국고지원사업 등 평가 관련 활동 경력 등
- 조직 관리 위한 행정 및 경영 능력을 가진 자
 - * 대학 행정(보직 등) 경력, 협회, 학회 등 전문직 단체 경력 등
- 평가원 운영의 비전 및 발전계획을 추진할 수 있는 자
- 국가시험(면허/자격) 관련 경력을 가진 자 우대

▣ 전형방법 및 절차

- 기한 내에 제출된 서류에 이상이 없는 자에 한하여 한국간호교육평가원 원장추천단 운영규정에 따라 구성된 원장추천단의 심의, 추천 후 이사회 의결을 통해 선임.

▣ 제출서류

- 원장 지원서 1부
- 개인증명서 각 1부(지원서에 기재된 자격요건과 관련된 증빙자료 포함)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 기타 지원서에 기재된 내용과 관련된 증빙서류 일체
 - * 제출서류 양식 : 한국간호교육평가원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작성

▣ 제출 기한, 방법 등

- 제출기한 : 2018년 4월 2일(월) ~ 2018년 4월 16일(월) 18:00까지
- 제출방법 : 방문(내선인 접수기능) 및 우편접수에 한함
 - 보내실 곳 : 서울시 종로 314 한국간호교육평가원 운영지원팀 인사담당자 (우) 04615, Tel : 070-4626-2315, email : kabone@kabone.or.kr
 - * 방문 및 우편접수를 통한 제출은 마감일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 기타 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 초빙공고 결과 기한 내에 응시자가 없거나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보다 적극적인 인재 채용을 위하여 연장 공고를 할 수 있음.
- 기타 문의사항은 한국간호교육평가원 운영지원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국간호교육평가원 운영지원팀 인사담당자 Tel : 070-4626-2315)

2018년 온라인 간호사 보수교육 콘텐츠 개발 공고

대한간호협회는 2018년 온라인 간호사 보수교육 콘텐츠 개발팀을 공모하오니, 관심 있는 기관 및 전문가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주 제	간, 담도, 혼장의 내·외·과적 치료와 간호	소아청소년암환자 간호
	간호사를 위한 임상부분생리	임상간호연구방법
	간호연구를 위한 통계	정기이식환자 간호
	고위험신생아 간호	치매환자 간호- 중급
	눈, 귀, 코의 건강문제와 간호	프리센터 역량강화교육
	만성질환을 가진 노인환자 간호	혈액·조혈기계의 건강문제와 간호
비뇨기계 환자간호		

* 주제별 단일 응모팀 접수 시 해당 팀은 유찰 처리함

● 참가방법 : 개발자는 여러 주제에 대해 중복 지원이 불가함

● 개발 비 : 8시간 기준 3,000만원(VAT 포함)

● 개발책임자 신청자격

- 1) 간호계 : 대한간호협회 등록회원에 한함
 - 간호대학 교수(조교수 이상)
 - 의료기관 소속 임상경력 10년 이상의 석사학위 소지자(팀장급 이상)
- 2) 비간호계(의료인) : 간호계 1인이 공동개발책임자로 구성되어야 함
 - 의과대학 교수(조교수 이상)

● 제출서류 : 온라인 간호사 보수교육 콘텐츠 개발신청서, 자가점검표, 최종계획증명서, 제작증명서

● 신청마감 : 2018년 4월 16일(월), 이메일 도착분(서명날인 기재)

● 제출처 : eduson@koreanurse.or.kr(02-2206-1914)

* 자세한 사항은 KNA에듀센터 홈페이지(edu.kna.or.kr) 참고

'보건산업혁신창업센터' 오픈 보건산업 제2의 창업 봄 확산 주도

보건복지부는 보건산업 분야의 혁신적·도전적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전진기지 역할을 담당할 '보건산업혁신창업센터'를 3월 20일 개소했다. 서울역 인근 봉래빌딩에 자리하고 있다.

최근 의약품·진단 분야 등 바이오벤처 창업이 2000년 108개에서 2016년 230개로 크게 늘면서 제2의 창업 봄이 일어나고 있다. 2016년 바이오·의료 분야에 투자된 벤처자금도 4686억원으로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의 제조(959억원) 및 서비스(4062억원) 부문 투자액을 뛰어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러한 바이오 창업 성과를 확산시키고, 보건산업 분야 창업

업기업들이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보건산업혁신창업센터를 통해 창업기업들을 전주기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센터에서는 기술스카우터가 논문서치 및 현장탐방을 통해 우수 아이디어(기술)와 창업기업을 발굴하고, PM이 시제품 제작, 특히 전략 및 제품화 컨설팅 등 사업화 전과정을 밀착 관리·지원한다. 기술을 거래하거나 기업을 매각할 때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기술에 대한 가치평가도 지원한다.

또한 창업기업이 겪는 자금이나 기술, 판로개척 등의 문제에 대한 해당 분야 전문가 멘토링을 지원한다. 의료인과의 만남을 통해 서비-



합격기원 응원 현장

간호학 전문이기 때문에 특별하다!

시작부터 합격까지 '간호교육연수원'은 다릅니다.



- ✓ 임상생활 또는 현재생업을 병행할 수 있는 학습시스템 구축
- ✓ BMW (버스, 전철, 도보) 자투리 시간 활용을 위한 온라인 + 모바일 무상 제공
- ✓ 혼자서가 아닌 전문 학습 담임제에 의한 1:1 매니저먼트 서비스 제공



5단계 학습 시스템 제공

간호직공무원/ 보건진료직공무원/ 보건직공무원/ 보건복지부공무원 / 보건교사 / 공사 · 공단 취업 / RN-BSN / NCLEX-RN / 병원코디네이터

무료상담 080-529-0909, 080-913-0909

www.ganhohak.co.kr